

# 서민 올리는 대출사기 기승

#1 취업난에 시달리던 대학생 A(여·22)씨는 손모(22)씨로부터 '외국인을 위해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증을 통해 다시 해당 외국인에게 채무를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공증을 하고, 변호사도 대동해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 손씨는 A씨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2 사업 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C은행 계열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결려온 전화를 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먼저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납입하면 C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수료 200만원을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쟁겨 달아냈다.

서민을 상대로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준 차장검사)은 여성 취업준비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광주지역 조직 폭력배 손씨 등 22명을 검거,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미취업 20대 여성 등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국인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 주고,



채무는 나중에 해당 외국인에게 이전하겠다"고 속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32명의 명의로 대출받은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출한도를 올리려고 서류 위조책과 연계해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대출 브로커들과 연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나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을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준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장은 "계속된 경기 침체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금융 관련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종 불법대출 등 금융업의 구조적 비리 및 부정부패 사범을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대출사기가 급증하자 '대출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10월 대출사기 피해자수는 5689명으로, 전체 금융사기(8447명)의 67.3%에 달했다. 대출사기는 올 상반기(1~6월) 1711건이었지만 7월 1800건, 8월 1468건, 9월 1508건, 10월 913건 등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피해액도 올 상반기 9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7월에 만 99억원, 8월 72억원, 9월 79억원, 10월 51억원 등으로 하반기 4개월간 301억원이 발생, 상반기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유형이 점차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상묘 이장 갈등에...삼촌이 엽총으로 조카 살해

### 고흥경찰, 70대 검거

### 무등록 총기 30년간 보관

고흥의 폐교 인근 묘소에서 조상묘 이장 문제로 앙심을 품은 70대 남성이 조카들에게 엽총을 쏘아 1명이 숨졌다.

이 남성이 범행에 이용한 총기가 30여년간 등록도 없이 불법 보관된 총기라는 점, 3정의 총을 가지고 있던 그가 2년여 전 2정의 총기를 양도하고 남겨둔 총과 탄환을 범행에 사용한 점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고흥군 영남면의 한 폐교 인근 묘지에서 박모(72)씨가 시체를 지내던 중 조카 A(56)씨와 B(69)씨에게 엽총을 쏘아 A씨

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으나 경찰에 1시간 만에 검거됐다.

박씨가 범행에 사용한 미국산 엽총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총기 일련번호(총번호)조차 훼손된 '무등록' 총기로 드러났다. 또 박씨가 지난 2013년까지 수렵 목적으로 2정의 엽총을 허가받아 보관한 뒤 이를 양도하고 남겨 둔 12발의 탄환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점을 확인하고, 그의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총기나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에서 미뤄 평소 박씨에게 총기와 탄환을 공급하는 총포상 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들이 조상묘 이장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뒷길에 일을

저질렀다. 사용한 총기는 지난 1980년 서울의 한 총포사에서 선물 받은 당시부터 총번호가 지워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총기 입수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개정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엽총 등 모든 총기류는 경찰관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총기 사용은 수렵장 개설 등 특정 기간에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박씨의 엽총은 총기 등록 자체가 없어서 지난 30여년간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광주·전남의 총포 소지 허가 건수는 1만3450건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고흥=주정욱기자 gjju@kwangju.co.kr

### 부부싸움 아내에 공포탄 쏜

### 경찰관 파면 적법 판결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경찰관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공포탄을 쏘아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3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아내의 가계에 찾아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권총

으로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향소심은 이씨의 가족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여수 개도 주민들 "관광객 때문에 배 못타 집에도 못가"

여주시 화정면의 섬 '개도'에 사는 주민들이 여객선 항로를 개선해 달라며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도지역발전협의회와 개도 섬 내 화산·신흥·월항마을 이장 등 주민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여객선이 경유지인 개도에서 정원초과로 섬 주민들을 태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정면 소재지인 백야항과 개도 화산마을 간 신규 여객선 운항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령길 인기 여객선 대신 "배편 늘려 주오" 탄원서

육지에서 출발해 개도를 거쳐 다른 섬으로 가는 항로는 여수여객선터미널-백야-개도(여석·모전마을)-하화도-상화도-사도-남도 노선과 여수여객선터미널-개도-자봉도-송도-금오도 함구미 등 2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 중 하화도·사도·남도와 비령길로 유명한 금오도 함구미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중간 경유지인 개도에서 정원 초과 상황이 발생해 섬 주민들을 태우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객선이 새로운 경유지를 추가하려면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 되지만 기존에 운항하던 선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실정"이라며 "선사와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의견을 모으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광주 '사랑의 온도탑' 제막...사랑으로 채워주세요

### '영아 시신 택배' 30대여 향소심도 징역 1년 선고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201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31일까지 35억7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7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진정함에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향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포장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기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동안 방안에 방치한 점을 볼 때 미필적이나마 아기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도박 탕진 커플 상가털다 털미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10대 남성과 20대 여성 커플이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가털이에 나섰다 경찰에 털미.

○...23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A(18)군 등 2명은 지난달 16일 자정께 광양읍의 한 모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훔치는 등 아음을 틈타 원룸과 상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텔레비전 9대, 스마트폰 2대 등 6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올린 뒤 물건값 20만원만 받아 챙긴 사기 행각도 들쭉날쭉했다. 경찰에서 A군 등은 "사실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 잃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쳐 팔았고 사기도 쳤다. 그 돈마저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고 결국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며 후회. /광양=박정욱기자 pyj4079@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